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세기 미제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

홍 춘 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군인들과 근로자들은 제국주의반동들의 고립압살책동이 악랄해지면 질수록 필승의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맞받아나가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제21권 증보판 334페이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복잡한 국제적환경속에서도 한결음의 주저나 동요도 모르고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게 된것은 전적으로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악랄해지는 미제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세기 미제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강력한 대미언론전을 통하여 미제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에 된타격을 가하도록 한것이다.

우리 당은 우선 미제의 대조선정책에 대처하여 우리가 취하는 원칙적립장을 천명하고 적들의 책동을 까밝히는 여론공세를 들이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경수로건설이 지연되고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는 미제의 책동과 관련하여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밝힌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발표하게 하고 5월에는 경수로건설이 대폭 지연되고있는 객관적사

실자료에 기초한 공화국의 구체적인 상보를, 6월에는 조선중앙통신사 론평을 발표하게 하였다. 우리 당은 6월 18일 미국이 궁여지책으로 《협상재개의지》를 들고나온것과 관련하여 외무성 대변인담화 《조미회담에서는 경수로제공지연에 따르는 전력손실보상문제가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를 발표하게 하였고 련이어 신문, 방송을 통하여 미국이 경수로건설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보상책임을 회피해보려고 들고나온 꾀변들의 본질을 밝히는 론평들을 발표하여 여론공세를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정당한 론거에 놀리운 부쉬 행정부는 마침내 전제조건없이 임의의 시기와 장소에서 조미대화를 재개할것을 바란다는것을 표방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2002년 부쉬가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군사적으로 압살할 기도를 포괄적으로 드러내놓은것과 관련하여 우리 당은 외무성 대변인성명 《미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할것이다》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대변인성명이 나간 후 국제사회는 부쉬의 《악의 축》론을 무근거한 꾀변으로 준렬히 규탄하였으며 미국내에서와 미국의 동맹국들에서도 신랄한 비난이 쏟아져나왔다. 《악의 축》망발에 대하여 전 미국무장관 알브라이트는 클린턴행정부시기에 조선과 관계개선을 위해 수립해놓은 초보적인 관계를 부쉬가 《한순간에 망쳐놓았다.》고 주장하였고 유럽동맹위원회 대변인은 《유럽동맹의 고위대표들은 그러한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프랑스외무상은 미국이 일방주의적시도를 버릴것을 호

소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의 그 무슨 《인권문제》를 《국제적문제》로 확대시킴으로써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을 더욱 국제화해보려고 할 때에도 국제무대를 통하여 미국을 때릴데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우리 당은 《인권법정의 피고석에 나서야 할 인간백정무리》, 《세계민심의 눈총을 받는 인권악마》를 비롯한 여러 글들과 신문, 방송에서 미국이 감행하는 반인륜적인 인권유린행위를 련이어 폭로규탄하도록 하였고 인권소동을 벌리는데서 종전의 수법을 달리하고있는 미제의 책동에 대처하여 주체94(2005)년 11월 유엔주재 우리 대표가 DPA기자와의 회견을 가지게 하였으며 11월 8일에는 조선중앙통신사가 론평 《압력으로써는 아무것도 해결할것이 없다》를 발표하여 미국의 책동을 자료적으로 문제시하고 강하게 때리도록 하였다.

우리가 미국의 책동에 대처하여 강경하게 나가자 적지 않은 나라들은 우리의 정당한 론거와 주장에 공감과 지지를 표시하였고 눈치를 보던 나라들도 점차 미국의 의사를 잘 따르려 하지 않았다.

미국, 일본 등이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에 압력을 가하고 특히 반공화국《결의》채택에 맞추어 CNN 등 언론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세계적범위에서 우리 공화국을 헐뜯는 《인권》깜빠니야를 악랄하게 벌린 가운데서도 유엔성원국들중에서 과반수의 나라들이 반대, 기권, 결석한것은 적들과 서방의 반공화국《인권》책동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실증해주었다.

우리 당이 미제와의 대결에서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고 적들의 책동의 본질을 까밝히는 강력한 언론공세를 들이댔으로써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대렬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것은 조미대결에서 승

리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되었다.

우리 당은 또한 미제의 북침핵전쟁책동을 단죄규탄하는 언론전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미제가 우리 공화국에 군사적위협을 가하면서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릴 때마다 우리의 신문, 방송, 통신을 통하여 미제의 무모한 침략전쟁도발책동을 때리는 강한 언론전을 펴도록 하하였다.

우리 당은 《로동신문》에 론평 《전쟁도발자들은 제가 지른 불에 타죽고말것이다》, 《무모한 전쟁소동》을 비롯하여 여러 출판보도물들에서 미제의 발광적인 북침핵전쟁소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수 없는 반공화국침략행위라는것을 까밝히고 단죄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조치에 의하여 조선중앙통신사는 주체92(2003)년 6월 미제의 《전력증강계획》발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가 각각 발표되고 여러 출판보도물들에도 미제의 전력증강책동의 엄중성을 단죄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글들을 련속 게재하였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이 조선반도에 새 전쟁이 발발될수 있는 위험천만한 때에 《을지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을 한다고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우리 당은 주체95(2006)년 7월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가 대변인담화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무분별한 〈을지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를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7월 31일과 8월 1일 《로동신문》에 론평 《엄중한 군사적도발》, 《새 전쟁도발을 노린 무모한 군사적움직임》을 게재하여 적들의 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을 폭로규탄하고 위험한 불장난을 당장 중

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였다.

결과 남조선의 진보적인 단체들과 각계 각층 인민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감행하는 핵시험 전쟁연습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직접적인 파괴자인 미제를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 등 여러가지 반전반미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미제의 악랄하고 교활한 심리모략전을 짓부시기 위한 강력한 언론전을 펴나가도록 하였다.

미제는 북조선을 《붕괴》시키는데서 사상문화가 결정적역할을 한다고 떠벌이면서 소형라디오, 각종 록화물과 록음테프를 비롯한 불순출판전물들을 우리 내부에 침투시켜 우리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고 끈질기게 책동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2(2003)년 3월과 4월을 비롯한 여러 기회에 미제의 반공화국심리모략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우리 당은 《미국의 악랄한 내부분렬과 해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 《제국주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셔야 한다》, 《부르조아사상문화적침투의 위험성과 해독성》,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할 심리모략전》 등의 제목으로 기사, 편집물들을 내보내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제의 악랄하고 교활한 심리모략전을 짓부시기 위한 강력한 언론전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소형라디오와 방송선전, 불순록화물로 우리의 정치사상진지를 허물어보려던 적들의 책동은 각성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저지파탄되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세기 미제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중요한것

은 다음으로 미제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조치들을 취한것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적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서나가는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 미제의 대조선압살책동에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취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행정권이 합의한 모든 공약을 다 뒤집어엮고 우리 나라를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로 걸고들면서 대조선강경정책에 매달리는 호전적인 부위정권의 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나가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2009년 8월 미국 전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톤이 평양에 찾아오게 되었으며 2009년 12월에는 스티븐 바즈워스 미국대조선정책담당 특별대표가 오바마행정부의 첫 공식대표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이 처한 환경과 주변정세동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판단에 기초하여 언제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갈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우리 당이 반미대결전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온 결과였다.

우리 당은 온 나라를 반미대결전으로 힘있게 불리일으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높이 떨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은 민간무력의 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무력의 전투동원준비를 원만히 갖추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온 나라의 요새화수준을 계속 높여나가며 민간반항공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였다.

나라의 국방공업발전에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

하여 오늘 우리의 국방공업은 현대전쟁이 요구하는 방대한 군사적수요도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자립적인 국방공업으로, 강력한 타격력을 가진 현대적인 공격 및 방어수단들까지도 자체로 짙짙 생산하는 위력한 국방공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미제는 시대착오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벗어나 무모하고 모험적인 대조선적대시

정책이 어떤 후과를 초래하겠는가에 대하여 깊이 명심하고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미제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워야 할것이다.